

제15회 불교사회복지대회 “한국불교자비나눔대축제”

치 사

겨울에 들어서시는 이때는 포근함과 훈훈함이 더욱 돋보이는 절기입니다. 따뜻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겠다는 소중한 마음으로 자비나눔 한마당에 참석해 주신 대덕스님과 정·관계 대표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을 비롯한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15회를 맞이한 “한국불교자비나눔대축제”는 서로 다른 지역, 다른 영역이지만 사회적 공동선 실현을 함께한 이들이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나눔 실천’의 면면을 돌아보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따스한 법연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뜻 깊은 이 자리를 통해, 부처님의 참뜻과 무주상보시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현장실천가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의 보살행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의 혜택과 첨단문명의 편리를 이루었지만 한편으로는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로 소외계층의 고통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종교는 나눔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고, 불교 또한 다양한 복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해 왔습니다.

90년대 초 40여 곳에 불과하던 불교복지시설이 이제는 1,10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계 복지시설이 우리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자비로운 손길을 전하고 있고 날로 증가한다는 것은 매우 반갑

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불교복지 실천가 여러분들이 보다 정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나눔은 곧 수행이라는 사명감으로, 세상에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불성을 가진 평등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자비 보살행을 실천한다면, 우리사회는 물질과 정신이 잘 조화된 불국정토가 될 것이며 수준 높은 복지 국가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상하신 불교사회복지 실천가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2013)년 12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자 승